

함평 골프고 출신 박도은 데뷔 6년만에 첫 우승

KLPGA 드림투어 역전극 펼쳐 2018년 정규투어 진출했지만 부상·슬럼프 겹쳐 드림투어 유턴 내년 정규투어 진출 가능성 높아

함평 골프고 출신 박도은(24)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드림투어에서 우승했다. 박도은은 지난 12일 경기도 용인 골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2022 지에이코리아 드림투어 1차전(총상금 1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1개로 7언더파 65타를 쳤다. 박도은은 최종합계 11언더파 133타(68-65)를 기록, KLPGA 입회 6년 만에 첫 우승 기쁨을 맛봤다.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치며 공동 10위로 경기를 마친 박도은은 최종라운드에서 패조의 샷감을 선보였다. 전반 9개 홀에서 버디만 5개를 골라잡으며 단숨에 선두권으로 뛰어올랐고, 후반에는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더 줄이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서울에서 태어난 박도은은 초등학교 4학년때 취미로 골프채를 잡은 뒤 아버지 고향인 함평으로 내려와 대동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

했다. 이후 송정중, 함평골프고를 거쳐 세종대 체육학과에 진학했다.

박도은은 지난 2016년 고교생으로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되던 이어 같은 해 아마추어 신분으로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16차전에서 우승,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부상과 슬럼프가 발목을 잡았다. 2018년 정규투어에 진출했지만 손목부상과 슬럼프가 겹치면서 다시 드림투어로 유턴했다.

그는 절치부심 재기를 노렸다. 좌절하는 대신 평소 부족했던 퍼트를 다듬고 약점으로 지적됐던 거리를 보강하는 등 훈련에 매달렸다.

박도은은 "정규투어를 경험한 뒤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 골프를 포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거리가 많이 나지 않아서 골프가 힘들어졌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훈련해서 지금은 20야드 정도 비거리가 늘었다. 거리가 늘어서 경기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 정규투어 활동은 무척 힘들었지만 그만큼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단비에서 개명한 박도은은 "이름을 바꾸면서 골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마음가짐까지 새로워지고 활력을 얻었다. 때마침 새로운 스폰서도 만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우승으로 드림투어 상금순위 19위에서 5위로 경중 뛰어올라 내년 정규투어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도은이 최근 KLPGA 2022 지에이코리아 드림투어 1차전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KLPGA 제공)

박도은은 "간절하게 염원했던 우승이라 아직 실감 나지 않는다"면서 "두산건설의 권경훈 회장님과 노랑푸드의 송민규, 최명록 대표이사님, 오세욱 단장님, 김영수 프로님, 이로운 선생님, 미즈노와 타이틀리스트 등 도움 주신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복없는 플레이와 성적을 내는 프로골퍼가 되고 싶다.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정규투어 정상이 세계 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원한 워터쇼와 함께 슈퍼레이스 즐기세요

17일 영암 서킷서 챔피언십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 슈퍼레이스가 시원한 워터쇼와 함께 4라운드 질주를 펼친다.

오는 17일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2022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4라운드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썸머 페스티벌' 콘셉트로 치러진다. 레이싱과 함께 현장 관람객의 무더위를 식혀줄 워터쇼와 신나는 음악이 준비됐다.

슈퍼레이스는 축제 속 다채로운 이벤트까지 마련, 관람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장 빠른 종목인 삼성화재 6000 클래스에서는 1, 3라운드에서 1, 2위를 휩쓴 한국야트라스BX 소속의 김중겸, 조항우와 최명길 모두 핸디캡 웨이트를 신고 레이스를 펼친다.

KIC에서 열린 2라운드 우승자 김재현(볼가스모터스포츠)은 핸디캡 웨이트를 털어내며 또 한 번의 우승을 노린다.

지난 나이트 레이스에서 나란히 3, 4, 5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엑스타레이싱 이찬준, 이창욱, 이정우의 상승세도 기대를 모은다.

/연합뉴스



공은 어디로 14일 대구 수성못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2022 FIVB 비치발리볼 프로투어'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열린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 전설' 소렌스탐 살아있네~

LPGA 2인 1조 대회 첫날 선두...최혜진·안나린 조 공동 12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72승을 거둔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사진)이 '2인 1조' 정규 투어 대회에 출전해 첫날 선두로 나섰다.

소렌스탐은 14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70·6256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다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터테이셔널(총상금 250만 달러)에 마들렌 샥스트림(스웨덴)과 한 조를 이뤄 출전, 1라운드 5언더파 65타를 합작해 공동 선두에 올랐다.

2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 치르는 이 대회는 1:3라운드는 공 하나를 한 팀의 2명이 번갈아 샷을 하는 포섬 방식으로 진행되며, 2·4라운드는 두 명이 각각의 공으로 경기해 매 홀 더 좋은 점수를 그 팀의 성적으로 삼는 포블 경기로 열린다.

소렌스탐-샥스트림 조는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하나로 막아 풀린 루생(프랑스)-데비 베버르(네덜란드)와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이저대회 10승을 포함해 LPGA 투어에서만 72승을 보유한 여자 골프의 전설 소렌스탐은 2008년 은퇴한 뒤 정규 투어 대회에 나서지 않다가 최근 이따금 출전하고 있다.

13년 만의 복귀전이던 지난해 2월 게인브리지 LPGA에서 컷을 통과해 74위에 올랐고, 지난달 US여자오픈에서는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소렌스탐이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려면 72번째 우승인 2008년 5월 미켈름 울트라 오픈 이후 14년 만에 LPGA 투어 대회에서 승수를 추가하게 된다.

비 때문에 2시간 40분 중단을 겪은 이날 경기에서 소렌스탐-샥스트림 조는 14번 홀까지 버디만 6개를 쓸어 담아 신바람을 냈다. 유일한 보기는 16번 홀(파4)에서 기록됐다.

공동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3위(4언더파 66타)엔 조디 유어트 새도프(잉글랜드)-에마 탈리(미국) 등 3개 조가 자리 잡았다.

한국 선수가 속한 조 중에선 강혜진(32)가 티파니 첸(홍콩)과 짝을 이뤄 2언더파 68타로 공동 7위에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유일하게 한국 선수끼리 구성된 팀인 최혜진(23)-안나린(26)은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69타를 기록, 공동 12위에 올랐다. 선두와는 4타 차다. /연합뉴스



한국 사격 이틀 연속 '금메달 명증'

창원월드컵 공기소총·권총 단체전서 금 2·은 1 추가

한국 사격 대표팀이 국제사격연맹(ISSF) 창원 월드컵에서 이틀 연속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금지현(경기도청)-이은서(서산시청)-권다영(IBK기업은행)은 14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2 ISSF 창원 월드컵대회 여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 금메달 결정전에서 인도의 라미타 라미타-엘라베닐 발라리반-메홀리 고쉬를 16-10으로 꺾고 우승했다.

전날 여자 사격 트랩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첫 금메달로 물꼬를 튼 뒤에 나온 한국의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이다. 메달 결정전에서는 합산 점수가 아닌 포인트제 승부를 가른다.

단체전은 세 명이 한 발씩 사격한 뒤 합산 점수가 높은 팀에 2점, 낮은 팀에 0점이 주어지며 비길 경우엔 1점씩 나눠 갖는다. 먼저 16점을 쌓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반부터 거침없이 점수를 쌓아 10-2로 앞선 한국은 11번째 시리즈에서 12-10으로 쫓기며 잠시 흔들리는 듯했으나, 타임아웃 이후 집중력을 되찾

고 우승을 확정했다. 같은 날 여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도 한국이 금메달을 가져왔다.

김민정(KB국민은행)-김보미(IBK기업은행)-유현영(서산시청) 조가 금메달 결정전에서 역시 인도를 16-12로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열린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는 김상도(KT)-박하준(한국체대)-방승호(한광고)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 결정전에서 인도에 15-17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10m 공기권총 대표팀의 이대명(경기도청)-이원호(KB국민은행)-목진문(청주시청) 조는 2차 본선에서 5위(569점)를 기록, 메달 결정전에 진출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탐간: 매버릭
- 2관 탐간: 매버릭
- 3관 탐간: 매버릭,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4관 엘비스
- 5관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 6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9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7관 세네케를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범죄도시 2,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8관 세네케를 헤어질 결심, 범죄도시 2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여행
일시 : 2022.07.28.(목)-30.(토)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즐거움

문화 산책